

해방기 좌익 문학단체의 성격과 ‘민족문학론’의 전개

최성윤(상지대)

〈목 차〉

- | | |
|--------------------------------|----------------------------|
| 1. 해방기의 문학사적 의의 | 3.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
| 2.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 | 4.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의미 |

1. 해방기¹⁾의 문학사적 의의

1945년 8월 15일, 우리 문학사에 급작스럽게 던져진 해방은 일제 식민지 말기를 무기력하게 견디고 있던 문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게로 다가왔다. 특히 1935년의 카프 해산 이후 전향문학²⁾, 나아가서는 친일 문학 작품을 그나마 간간이 생산해 내던 전향자들의 경우는 급변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가 더욱 힘들었다.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에 앞서

-
- 1) 해방 직후부터 단독정부 수립까지의 기간 즉 1945년 8월15일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지칭한다.
- 2) 여기서의 ‘전향문학’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일상 잡사에 눈을 돌린 작품이나 전향자의 후일담을 기술한 탈이념적 성격의 문학작품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하루 전까지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해야 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공적인 자리에서의 자기비판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저버리고 일본어로 작품을 창작한 작가, 붓을 쥐고 현실에서 등을 돌린 작가, 시대 현실과는 무관한 통속적 작품 생산으로 연명한 작가들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하기보다는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의 염을 드러내는 편이 대세에 편승할 수 있는 빠른 길이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자기비판의 장에 나섰고 쉽게 서로를 용서했다.³⁾ 한 점의 과오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며,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일시적인 화해 무드는 그러나 곧 깨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용서는 선부른 것이었으며, 그들의 자기비판은 충분히 철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 시대를 나뉘는 힘으로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재빨리 적응하여 분위기에 편승했던 것이다.

해방 후 문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단체를 조직했다. 1945년 8월 16일 문예연 <조선문학건설본부>가 그것이었다.⁴⁾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직의 주역은 임화, 이원조, 김남천 등 좌익 계열의 문인들이었지만, 외형상으로는 좌·우익을 망라한 통합적 문인 단체였다.⁵⁾ 이어 일제시대 카프의 정통성 계승을 표방한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⁶⁾이 결성되고, 두 단체는 <조선문학가

3) 1945년 12월에 있었던 봉황각의 좌담회는 「문인들의 자기 비판」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좌담회에는 김남천, 이태준, 한설야, 이기영, 김사량, 이원조, 한효, 임화 등이 참석했는데, 이 좌담회의 기본 태도는 한효의 발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곧 조선사람치고 일본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해도 무방할 것이며, 따라서 과거를 조금도 감춤 없이 준열한 자기 비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3~8면 참조)

4) 이 단체가 발족한 날짜에 대해서는 8월 16일 설과 8월 17일 설이 있다. 김윤식은 백철의 『문학자서전』(박영사, 1975)을 근거로 들어 여타 논자의 8월 16일 설을 부정한다. (김윤식, 앞의 책, 56~60면 참조) 그러나 분명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1947년 판 『예술연감』(예술신문사, 1947)과 조연현의 『해방문단 5년의 회고』(『신천지』, 1949.9) 등에도 8월 17일로 되어 있지만, 제1회 문학자대회의 회의록인 『건설기의 조선문학』의 「경과 보고」 및 「조선문학가동맹운동사업개황보고」(『문학』, 1946.7)에는 8월 16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8월 16일이든 8월 17일이든 문인들의 발빠른 행보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5) 식민지시기에 좌익 문학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해방 이후 끝까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요인들과 행동을 같이한 문인의 대표적 예가 이태준이다.

6) 1945년 9월 17일 발족한 단체로 구 카프 계의 인사들이 대부분 가담하였으며, 이기영, 한설야, 한효 등이 대표성을 띠었다.

동맹>⁷⁾으로 통합된다. 좌익 측의 발빠른 행보에 선편을 빼앗긴 우익 측에서도 <전조선문필가협회>⁸⁾, <청년문학가협회>⁹⁾ 등을 속속 발족시켰다. 38선 이북에도 탈이념적인 자생적 문화예술단체가 생겨났다. <평양예술문화협회>¹⁰⁾가 그 대표적 예인데, 이 단체는 소련 군정당국과 공산당의 간섭으로 자진 해체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¹¹⁾에 흡수되었다.

이들 문학단체들의 개별적 성격과 긴장·갈등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가 1980, 90년대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¹²⁾ 해방기 문학사를 조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종의 선행 작업은 해방기 문학사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한 후속 작업의 진척으로 확대, 이행되어 나가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에 이르러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탈근대주의 사조가 본격적으로 이입되기 시작¹³⁾하면서 해방기 뿐만 아니라 민족문학론, 민족문학사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을 중요한 이

- 7) 1945년 12월 13일 양 단체는 남로당의 간섭 하에서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되는데,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을 흡수 통합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의 주요 맹원들은 이미 북한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문학동맹>은 1946년 2월 8~9일 '전국문학자대회'를 계기로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개칭한다.
- 8) 1946년 3월 13일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회장은 정인보, 부회장은 이현구, 김광섭, 이하운, 오종식이 맡았다.
- 9) 김동리, 김달진, 유치환 등이 중심이 되어 1946년 4월 4일 결성된 단체이다. 기존의 우익 문학단체가 친목 단체나 다름없는 실속 없는 단체였다면 <청년문학가협회>는 논쟁에 나서는 등 명실상부하게 좌익 문학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익 문학단체였다.
- 10) 해방이 되었을 때 북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문학단체로 알려져 있다. 최명익을 회장으로 유항림, 주영섭, 김동진 등 순수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 11) <평양예술문화협회>에 맞서서 만들어진 것이 <프로예맹>이었으며, 김창만의 지도 아래 이들 두 단체가 <북조선예술총동맹>으로 확대된 것은 1946년 3월이었다. 철원에서 이기영, 함흥에서 한설야, 해주에서 안함광, 서울에서 박팔양, 박세영, 윤기정, 안막, 연안에서 김사랑 등이 와서 이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소련 군정의 문화담당관인 꾸세프 중좌와 김창만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윤식, 위 책, 26면 참조)
- 12)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이우용,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태학사, 1992.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 13) 김영민, 『민족문학론과 동아시아론의 비판적 검토 - 해방의 서사를 기다리며』, 『민족문학사연구』50, 2012, 462면.

유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해방기에 존재했던 문학단체들의 성립·전개·해소과정과 해방기 문학론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⁴⁾ 그러나 이 작업의 결과가 분단문학사의 현실, 남한문학사와 북한문학사의 개별적 성립 과정에 직대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방기의 문학사를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 자체 긴장과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해방기는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족문학론’이라는 명제 아래 전조선의 문인들이 한데 묶일 수도 있었던, 역사적으로 유일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역사가 실패와 좌절의 역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제 다시 민족문학사, 통일문학사로서의 한국문학사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에게 존재했던 유일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좌익 측은 해방 직후를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규정했다. 해방된 조선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완전치 않은 前자본주의 사회이며, 그러므로 먼저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¹⁵⁾ 그들은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이 단계의 목표로 들었는데, 이는 곧 ‘반제’와 ‘반봉건’의 명제에 상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족통일전선론은 이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 단계론의 전술에 해당한다. 프롤레타리아와, 여전히 인민대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과, 아직도 어느 정도는 진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는 일부 중간층, 그리고 지식인을 묶는다는

14) 위에서 든 문학단체들 중 특히 좌익 문학단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이유는 우익 문학단체의 경우 좌익 단체들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어서, 고유의 문학론을 가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좌익 문학단체에 반대하는 것 이상의 존재 이유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5) 이와 같은 좌익 측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료는 박헌영의 ‘8월 테제’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잘 나타난다. 이 자료는 김남식 편 『남로당 연구 자료집(1)』(고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197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족통일전선론은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의 주체가 될 광범한 인민층의 규합을 노린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통일전선론은 좌익 문단의 시각에 바로 영향을 끼쳤다. 민족통일전선에 의해 묶여지는 광범한 인민층을 바탕으로 육성될 신문화가 곧 좌익 문단이 지향하는 민족문화로 인식된 것이다. 편협한 계급 대신 민족을 앞세움으로써, 그리고 ‘토지의 균등한 재분배’와 ‘일반 근로 대중 생활의 급진적 개선’을 주장함으로써 좌익 측은 오랜 압제 끝에 해방을 맞아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식민자본주의체제의 종식 및 그 부산물인 모순적 사회제도의 청산을 의미했다. 농민의 절대 다수가 소작농이었음을 감안하면 토지의 균등한 재분배는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좌익 측이 제시하는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하루바삐 설 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인들의 현실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문인들이 정치적 열정을 드러내게 된 것은 자신들이 처한 시대상황과 문학의 역할에 대한 세심한 통찰에 의해 비롯되었다기보다 오랜 압제로부터의 해방에서 오는 흥분의 표현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들은 해방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고, 친일 혹은 부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비판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의 상황은 지식인 자신의 내면풍경만큼이나 혼란스러웠고, 그럴수록 진보적인 편에 서는 행위는 그들에게 심정적 위안을 줄 수 있었다.¹⁶⁾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들의 이 같은 정치적 열정이 정치세력예의 예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직후 처음으로 등장한 문학단체는 <조선문학건설본부>였다.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의 문인들은 해방된 지 불과 하루만인 1945년 8월 16일, 일제 말기의 부일문학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¹⁷⁾가 있던 종로의 한청

16) 해방기의 혼란된 상황과 문인들의 성급한 위치 선점 욕망은 이태준의 소설 『해방 전후』에 잘 드러나 있다. 이태준은 해방 이전 좌익계열의 활동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문인이었으나, 해방 직후 임화, 김남천 등과 같이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수립에 앞장선다. “조선문화의 해방, 조선문화의 건설, 문화전선의 통일을 부르짖는 그들의 주장엔 한 군데도 이의를 품을 데가 없었다”는 작품 내의 독백은 이태준의 노선 선택이 순진한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17) <조선문인보국회>는 <조선문인협회>, <조선배구작가협회>, <조선천유협회>, <국민시가연맹> 등 4단체가 발전적 해소를 하여 1943년 4월 17일 발족한 단체이다. (김윤식, 『해방공

빌딩을 접수하고, 바로 그 자리에 <조선문학건설본부>의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 단체의 결성이 놀랍도록 빠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몇몇 주동인물들과 소수의 동조자들에 의해 급조된 것이었음을 쉽게 추측하게 해 준다.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수뇌부는 매우 포용적인 태도를 표방하였다. 우선 그들은 좌익 활동의 전력을 갖지 않은 문인들에게도 단체의 문호를 개방했을 뿐 아니라, 그 자격이라는 점에서도 과거의 <문인보국회> 간부만을 제외했을 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¹⁸⁾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이같이 지나치게 포용적인 태도는 조직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우려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으며,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등의 비판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문학건설본부>측의 포용적 태도는 당시 강조되고 있던 '8월 테제'의 주장에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민족통일전선전술과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 단계론에 입각하여 보자면, 진보적 문인층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려는 의도는 나름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조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영입의 제한을 강화하지 않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방침은 당의 노선에 상응하는 것이었고, 이후의 좌익 문단 내의 파쟁 구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박헌영의 '8월 테제' 즉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뒤이어 임화가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¹⁹⁾를 내놓은 사실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노선이 조선 공산당의 그것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조선문학건설본부> 설립의 성격을 추론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조선문학건설본부>의 포용적 태도가 조선공산당의 정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 당의 외곽단체로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처음부터 지도되고 있었다는 추측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임화 등이 박헌영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접촉하였는가를 실증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8월 테제'가 발표된 이후 임화와 <조선문학건설본부>가 박헌영의 노

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57면 참조)

18) 실제로 <문인보국회>를 접수하고 간판을 바꾸어 달았던 임화와 이원조, 김남천, 이태준 등이 모두 문인보국회에 관계된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1945.11.15.

선을 적극적으로 추종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은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발족은 해방 이튿날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8월 테제'는 8월 20일에 통과된 것이었다. 게다가 재건파의 박헌영이 장안파와의 대결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고 조선공산당 결성을 공포한 것은 9월 11일의 일이었다. 최소한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발족 당시에 박헌영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²⁰⁾ 요컨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노선 선택이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그것에 맞추어져 있음은 틀림없다 하더라도, 조직 구성의 포용성은 외부로부터 지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문학이론 전개는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에 의해 수행된다. 그 골자를 보면 1) 정치혁명과 아울러 문화, 혹은 문학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2) 현 단계가 정치적으로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 단계인 만큼 문학혁명 역시 프로문학이 아닌 인민적 신문학 건설을 의도해야 한다는 점, 3) 현단계의 과업으로 일제 잔재와 봉건 유제의 청산, 국수주의의 배격, 부패한 시민문화의 삼재를 들고 있는 점, 4) 그 구체적 방략으로 문학통일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며 대중화 및 계몽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지향하는 '민족문학'이 '인민적 신문학'이라는 말로 집약된다는 점이다. '8월 테제'가 이미 민족통일전선전술에 의한 하층 합작의 대상, 즉 프롤레타리아를 위시한 농민, 그리고 지식인과 진보적 시민을 은연중에 민족으로 한정하고 있거니와, 임화 등이 말하는 '인민적 신문학'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학혁명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 입각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며, 통일전선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전제조항이었다. 그러나 <조선문학건설본부>에서 제

20) 해방 직전 당시 임화와 이원조는 <문인보국회>의 평론, 수필부의 평의원이었으며, 김남천은 소설, 희곡부의 평의원이었다. 적극적 친일문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부일문학단체의 멤버였으며, 이 같은 전력으로 볼 때, 박헌영과의 관계는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이기봉은 박헌영의 재건파가 장안파를 누르고 남한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되자, 임화 등이 박헌영에게 다가간 것이라 판단한다.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1986, 54면 참조)

출한 문학이론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이 단체 조직의 태생적 무원칙성은 이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이러한 측면은 곧 프로문학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우회전략 내지는 비혁명적 절충안이라 하여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측의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임화 등이 <조선문학건설본부>를 만들면서 구 카프계 인사들을 망라하지 않은 것, 혹은 망라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은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 가능성들을 꺼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그 중의 하나는 임화의 정치적 야망에 대한 것이다. 임화는 구 카프 후기의 중심인물이었지만 경력 면에서는 김남천 등과 함께 소장파에 속했다. 이들 소장파가 주동이 되어 발족시킨 <조선문학건설본부>에서 이기영, 한설야 등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곧 실질적 대표의 자리를 양보해야 함을 의미했던 것이다. 어쨌든 임화는 해방기의 서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반발하여 나타난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과의 세 싸움에서도 실질적 승리를 거둔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의 대립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두 단체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인 맥락을 띤 것이어서 주목되어 왔다.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카프 해소파의 단체로,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을 카프 비해소파의 단체로 규정하는 논의에 대해 일단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²¹⁾

카프의 존재는 1935년 5월21일 임화, 김남천에 의해 해산계가 제출됨으로써 소멸되었다. 임화와 김남천 뿐 아니라 신유인, 이갑기, 박영희, 백철 등이 카프의 해산에 앞장선 문인들이었다. 이들이 카프 해소파로 거론된다. 반대로 해방 이후 카프 비해소파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은 윤기정, 홍구, 박아지, 박

21) 두 단체의 성격을 해소파와 비해소파로 구분하여 논한 대표적 연구자는 김재용이다. 이 논의는 이우용 등에 의해 비판되었으며, 몇 차례의 논쟁이 있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김재용은 최근 자신의 논의가 카프 해소파와 비해소파의 기계적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문학론의 특성에 관계된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김재용, 「카프 해소 비해소파의 대립과 해방 후의 문학운동」, 『역사비평』, 1988. 겨울.

이우용, 「문건과 프로문학의 문학운동론과 조직노선」, 『실천문학』, 1989. 가을.

임규찬, 「카프 해소 비해소파를 분리하는 김재용에 반박한다」, 『역사비평』, 1988. 겨울.

세영, 한설야, 이기영, 한효, 김두용, 권환 등이다. 물론 이들 개개인의 성격을 해소, 비해소의 두 가지로 유형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카프 해소파, 카프 비해소파라는 용어가 적당치 않다면, 카프 해산을 둘러싼 식민지시기 당대의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임화와 김남천이 김기진과의 논의 끝에 카프의 해산계를 제출할 당시 카프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단체였다. 대부분의 맹원들이 ‘전주사건’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거나, 이미 전향을 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카프 해산의 책임을 임화와 김남천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어쨌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던 이들이 해방 직후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조직하고 실제로 군림하려 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이 없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카프의 해산에 끝까지 반대하고 지하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기정, 홍구, 박아지, 박세영 등을 제외한 한설야, 이기영, 한효 등이 임화와 김남천을 매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제 말기를 순결하게 살아왔는가를 묻는다면 이들 구분의 기준을 카프의 해소와 비해소로 설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해소파, 비해소파 등의 용어나 개념 규정에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임화, 이원조, 김남천 등의 <조선문학건설본부>의 핵심인물들은 이기영, 한설야 등 거물급 인사들 뿐 아니라 대다수의 카프 맹원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기영, 한설야를 위시한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조선문학건설본부>에 대립하여 좌익 문단을 양분하게 된 것은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직의 무원칙성에 반발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카프를 계승하는 프로문학의 정통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분은 카프의 해산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카프 노선의 과오를 비판하면서 극복을 꾀한 부류의 인물들과 카프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궁극의 목표점에 도달할 것을 기도한 부류의 인물들로 일제시대와의 관련성 속에서 맥락화되어야 할 것이다.

1945년 9월 17일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은 이처럼 <조선문학건설본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조직되었다. 이기영의 이름을 맨 위에 놓고 윤기정, 한효, 한설야, 이동규, 권환, 윤규섭 등이 주동이 된 이 단체는 그 명칭부터 그러하듯이 카프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표방하면서 현단계의 문화혁명은 곧

바로 프롤레타리아 문화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는 당대의 상황에서 프로문학의 건설은 무리라는 전제 하에 ‘인민적 신문학’을 주장한 <조선문학건설본부>와 대립되는 입장이었으며,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구 좌익계 인사들을 망라한 점에서 결속력이 약했던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조직과 대비되었다.

<조선프로문학동맹>의 논자들도 당대가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 단계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정치적 혁명 단계론을 그대로 문화혁명에 대입시키는 것은 정치와 문화를 혼동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화는 이데올로기의 형식이므로 이데올로기가 갖는 계급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²²⁾

<조선프로문학동맹>의 ‘프로문학론’과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인민문학론’은 이처럼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논쟁이 한 곳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정통성 시비와 관계없이 좌익 문단의 실권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이후 두 단체의 통합 과정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게 된다. 1945년 12월 3일 두 단체의 대표들은 합동위원회를 연 후, 12월 6일 양 단체를 해소하고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할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²³⁾ 이어 12월 13일 통합 결성식을 겸한 합동총회가 열린다.

이 통합의 과정에는 당의 명령과 김태준²⁴⁾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프로문학동맹>의 핵심에 있었던 이기영과 한설야가 합동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²⁵⁾ <조선문학동맹>은 서로의 견일치를 본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통합단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2) 한효, 『예술운동의 전망 - 당면문제와 기본방침』, 『예술운동』 창간호, 1945.12 참조.

23) <조선문학건설본부> 측의 합동위원은 임화, 김남천, 이원조, 김기림, 안희남이었고, <조선프로문학동맹> 측은 윤기정 한효, 권환, 박세영, 송완순이었다. (신형기, 앞의 책, 60면 참조)

24) 김태준은 박헌영 계로 과거 경성 콤포그룹의 인민선전부장이었으며 해방 후엔 재건파의 서기국원이었다. (신형기, 위 책, 61면)

25) 이기영과 한설야는 이때 이미 서울의 문단을 떠나 지방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선문학동맹>의 결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조선문학가동맹>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다음해 3월 <북조선문예총연맹>에 합세한다.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주(主)가되고 <조선프로문학동맹>이 종(從)이되는 관계 속에서의 통합이었던 것이다. 통합에 협력하지 않은 문인들의 경우, 이기영이나 한설아처럼 서울 문단을 떠나 버리거나²⁶⁾, 윤규섭이나 한효처럼 통합 후에도 <조선문학건설본부>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좌익 문단 내 갈등은 1945년 말에 외부적 압력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1946년 초부터는 <조선문학동맹>의 발전태인 <조선문학가동맹>과 북한에서 성립된 <북조선문화예술총동맹>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3.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화예술총동맹>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동맹> 측이 - 인용자) 아무리 목청을 돋우어도 통합과 함께 주도권은 이미 <문건>(<조선문학건설본부> - 인용자)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더구나 <노동조합전국평의회>라든지 <농민조합총연맹> 그리고 청년, 부녀 동맹에 이르는 외곽단체의 결성이 이미 45년 말에 완수된 마당이었으므로 문화전선의 통합과 조직화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했을 경우, 당의 결정에 대한 불만과 비방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었다. <동맹>(<조선프로문학동맹> - 인용자)의 일원이었으나 통합에 협조했던 권한이 유독 문화전선에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정당한 정책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일부 문화인”에게 물은 것은 더이상의 비판이 무용함을 자인한 결과였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당의 결정이 내려진 뒤인 만큼 좌익 내부의 반목이란 피차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권한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었다. 당활동은 내외의 여러 문제점에 부딪혀야

26) 이기영, 한설아를 비롯하여 6·25 종전 이후 북한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월북시기, 동기 등을 묻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남북이나 재북 문인들이 아닌 월북문인들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시기를 따지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해방기에도 역시 문학예술의 본산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38선 이북에 고향이나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문인들은 월북문인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해방기는 문단되기 이전부터 문단의 이분화 가능성을 내포하여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으므로, 서울을 근거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던 문인들이 또 하나의 중심지로 부상한 평양 문단에 합류하는 일이 잦았다. 최명익과 『단충』과의 경우 서울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지 않고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재북문인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바, 문학활동의 공간과 생활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던 이북 출신 작가들의 경우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했으며 한때는 흰히 뿔러 보이는 것 같던 앞날이 점차 불투명해져 가기 시작했다. 남한도 남한이었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당의 이원화를 암시하고 있었다. (…중략 - 인용자…) 문단 헤게모니 장악에 실패한 <동맹> 수뇌부가 일찌기 북쪽에 눈을 돌린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읽었던 때문이었다. 이기영과 한설야가 월북한 것은 45년 말 경으로 보인다.²⁷⁾

위 인용문은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문학동맹>의 논쟁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종료된 시점이 1945년 말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 단체의 통합은 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조선문학건설본부> 측의 실질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형태로 출범한 <조선문학동맹>은 <조선프로문학동맹> 주요 인물들의 불참과 평양행으로 인해 처음부터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없었다. 이기영, 한설야 등이 평양을 택한 것을 두고 변화의 조짐을 읽은 탓이라는 진술은 일견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이원화에 편승한 것이거나 김일성의 승리를 처음부터 점치고 있었다고 하는 해석에까지 나아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²⁸⁾

1946년 2월 8~9일 전국 문학자대회를 열고 <조선문학가동맹>으로 이름을 바꾼 서울의 좌익 문단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에 성공하였지만, 바로 그 다음달 평양에서 시작된 <북조선문예총>의 건제에 직면해야 했다. 해방 직후 평양에서 활동하던 문인들은 소수였고, 또 대부분 일제시대에 순수문학을 지향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구 <조선프로문학동맹>의 멤버들이 합세함으로써 <북조선문예총>은 <조선문학가동맹>과 대등한 세를 과시하게 되었다.

과거 <프로문학동맹>의 맹원들이 대거 평양으로 향해 떠난 후 <문학가동맹>은 비교적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조직으로 변화였다. 상대적으로 <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예총>간의 대립 관계가 설정되었던 것인데, <북조선문예총>의 중심에 <프로문학동맹>의 요인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었으므로

27) 신형기, 앞의 책, 63~64면.

28) 임화와 박헌영의 관계만큼이나 한설야와 김일성의 관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데, 한설야가 언제 처음 김일성을 만났으며, 김일성에 의해 인정을 받았는지를 실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해방기의 성격상 하루나 한 달이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었으므로, 보다 정확한 문학사적 연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두 단체의 대립 관계는 <문학건설본부>와 <프로문학동맹>의 갈등을 상당부분 내포한 채 시작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전조선문필가협회>, <청년문학가협회> 등의 우익 문학단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문학가동맹>측은 우익 논자들과의 세 싸움에도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난관은 박헌영의 월북이었다. 박헌영이 월북한 후 <문학가동맹>의 거점은 해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평양에서 박헌영이 지령을 내리면 해주에서 그에 따라 서울을 지도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박헌영이 월북한 것은 1946년 10월이었으며, 평양에 머물면서 해주에다 전초기지를 만들어 남로당을 총지휘하였다. 해주 제1인쇄소가 그 전초기지였는데, 여기서 『민주조선』, 『인민조선』 등의 선전물을 만들어 서울에 밀송하였는데, 이 인쇄소의 중요 인물은 박승원, 박치우, 이태준, 이원조, 임화 등이었다. 이 거점이 6·25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 인용자) 임화를 포함한 이들 중심분자들이 월북한 것은 1947년(1946년의 오식일 것이다 - 인용자) 가을경으로 추측된다.²⁹⁾

위 인용문에 비추어 보면 서울의 <문학가동맹>은 1946년 가을 이후 해주의 <분국>정도의 위상만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문학가동맹>은 1946년 11월 8일 조직의 임원을 개편한다. 부위원장 이기영·한설야, 중앙집행위원 윤기정·한효·이동규·박세영·안함광 등이 제외되었고³⁰⁾, 이병기·양주동·염상섭·등이 보선되었다. 보선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문학가동맹>의 좌익 경향이 상당 부분 탈색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남천은 서기장으로 뽑혔는데, 그는 바로 월북하여 해주 진영에 합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천을 서기장으로 내세웠던 것은 <문학가동맹>이 해주 진영에 의해 지도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였다.

29) 김윤식, 앞의 책, 20면.

30) 이기영, 한설야, 안함광 등은 애초부터 <문학가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가동맹>측이 이들을 임원진의 명단에서 빼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북조선문예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당이 인정하는 유일한 문학단체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좌익문학운동의 노선은 3분화되었다. 일찍 평양에 근거를 잡은 <북조선문예총>과 해주 제1인쇄소의 <문학가동맹> 지도부, 그리고 서울의 <문학가동맹>이 그것이다. 이 중 서울의 <문학가동맹>은 간접적으로 해주의 지령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해주까지의 거리 문제도 있었고, 미 군정의 탄압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으므로, 나름의 독자적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의 임원 개선은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인데, 이미 <문학가동맹>은 해방기 유일의 승인된 좌익문학단체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민문학론’의 노선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 가맹 수준은 더욱 저하되었다. 게다가 몇 명 남지 않은 소장파 이론분자들의 역량은 우익문학단체와의 논쟁에 뛰어들기에도 힘든 형편이었다.³¹⁾ 얼마 있지 않아 <문학가동맹>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프로문학동맹>에 승리했던 것처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우익문학단체들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해주의 <문학가동맹> 지도부 즉 남로당계 문인들은 (특히 임화의 경우) 구 <문학건설본부>와 통합 <문학가동맹> 시절의 자신들의 문예이론을 점점·성찰하고 ‘민족문학론’의 성격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 준다. 임화의 심화된 이론의 요체는 ‘인민문학’을 논리적 모순 없이 ‘민족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과거 <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은 두 가지 방향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 하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문학론³²⁾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극좌적 경향의 무산계급 문학에 대한 비판이었다. 두 가지 중 후자는 같은 좌익 계열의 문학단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단체 또한 ‘민족문학론’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던 바, <북조선문예총>이 그 존재였다. <문학가동맹>은 ‘인민문학’을, <북조선문예총>은 ‘계급문학’을 각각 ‘민족문학’으로 논리화시키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의 논리의 문제는 민족문학 수립의 영도자가 프롤레타

31) 우익 측의 주요 이론가는 김동리, 조연현, 조지훈 등이었으며, 서울에 남아 이들과 이론 투쟁을 벌인 <문학가동맹>의 맹원은 김동석, 김병규 등이었다.

32) 좌익에 대항하여 조직된 우익측의 문학론을 말하는 것이다. 좌익측의 논자들은 자신들의 ‘민족문학론’을 ‘민족주의 문학론’과 엄격히 구분하였다.

리아이되 그것이 곧 프로 문학이 아니고 민주주의민족문학이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데 있었다. 임화의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³³⁾는 자신과 <문학가동맹>측의 고민을 반영하는 글이면서 어느 정도 발전된 단계의 민족문학론을 제시한 예로 이해된다. 그는 자기 민족의 힘으로 봉건 사회를 타파하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받은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의 과제가 제기되며 이것은 인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단 전제한다. 여기까지는 <조선문학가동맹> 초창기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화는 이에 덧붙여 ‘민족문학’은 인민의 영도 세력이 되는 노동자 계급의 이념에 입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이념이 민족의 이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노동자 계급의 이념이 민족문학의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이념이 민족문학의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못지않게 노동자 계급의 이념에 입각한 문학이 왜 계급문학이 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임화는 노동자 계급의 이념에 입각한다는 것이 편협한 자기 계급의 이해라든가 해방의 문제로만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민과 민족의 전체 해방과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문학이 노동자 계급의 이념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프로 문학이 아니라 민족문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과 당대 민족 현실의 전체적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조선문예총>의 민족문학론은 안함광에 의해 촉발되었다. 1946년 3월 25일 결성된 <북조선문예총>의 결성식에 보고된 『민족문화론』에 이르러 그들의 독자적인 민족문학론을 갖게 된 것이었다.³⁴⁾ 안함광이 내세운 민족문학은 과거의 프로문학운동을 단순하게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을 현단계적 특질 위에서 이어받자는 것으로, 현 단계적 특질이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민중이 반제·반봉건의 과제 아래서 진보적 민주주의국

33) 임화,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1947.4.

34) 김재용, 앞의 책, 58면 참조.

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했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안함광은 자신의 『민족문화론』을 더욱 구체화시킨 『민족문화 재론』을 발표한다.³⁵⁾ 이 글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계급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당대 민족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에 입각한다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현실과 교섭하면서 그것의 필연적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계급이 일반 사회의 전 존재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시기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공통적인 것은 해당 시기에 있어 현실사회의 필연적 발전 과정과 동계에 놓이는 계급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발흥기의 부르조아 계급이 그러했지만, 지금은 무산계급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당대에 있어서는 노동자 계급의 이념에 입각한 자만이 현실을 그 전체에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화와 안함광의 주장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한 곳으로 수렴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임화가 ‘인민문학론’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민족문학론’으로 나아갔으므로 편협한 계급의 이념을 경계하였다면, 안함광은 ‘계급문학론’으로부터 ‘민족문학론’으로 나아갔으므로 느슨한 민족 규정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논자의 결론은 ‘노동자계급의 이념에 입각한 민족문학’이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 임화는 계급 이념의 불철저함을 극복하였던 것이고, 안함광은 역사적 발전단계와 문학 이념간의 모순을 극복한 것이다.

양자 간의 토론이 보다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었다면 갈등과 대립의 관계는 생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세의 급속한 악화로 인해 두 논자는 그 계파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운명을 맞이해야 했으며, 민족문학론의 전개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에 개별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전쟁 이후 김일성이 북쪽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남로당 계로 분류된 임화 등의 문인들은 숙청되고 만 것이다. 안함광 또한 지속적으로 민족문학론을 개진시킬 수 없었으며, 해방기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35) 『민족문화론』과 『민족문화 재론』은 안함광의 『민족과 문학』(문화전선사, 1947)에 수록되었다.

떠면서 임화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의 부정과 비판은 임화 등 남로당 계 문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자신까지를 부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잠시 발견되었던 ‘민족문학’ 논쟁의 합치점은 외부적 요인의 개입을 이기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그것은 3년 동안의 해방기에 힘들게 얻어낸 문학사적 유산이었으나, 이를 우리 문단이 공유하고 혹은 비판적으로 계승할 기회는 달리 주어지지 않았다.

4.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의미

해방기에 좌익 문학단체들에 의해 전개된 민족문학론은 식민지시기 카프 문학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카프 해산 이후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이긴 하지만) 새로운 문학에 대해 그리고 이전 카프 문학의 맹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카프 문학의 실패는 카프의 해산과 그에 의해 촉발된 전향문학 등에 의해 상징적으로 대변된다.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해방기에 일어났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며, 그러한 노력이 몇 가지로 분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일군의 문인들이 해방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학단체의 설립을 기도하였던 것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서 해방이 역사적으로 정리될 정도의 성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일제 말기의 엄혹한 탄압을 핑계로 삼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기왕에 단체가 발족된 이상 일종의 이념과 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성찰 과정이 생략된 채 무원칙하게 모인 집단에서 확고하게 정리된 입장을 견지하기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고, 이들에 반발한 다른 문인들이 별개의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들 두 단체는 대립과 갈등의 과정에서 나름의 이론 논쟁을 전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력의 후광을 입을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 흡수통합을 강요당한 한

단체의 요인들이 평양에서 집결하기 시작했으며 갈등과 대립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민족문학’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도 했다. 민족의 범위와 민족문학 개념의 논의 수준은 임화, 안함광 등에 의해 고양되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인민문학론’과 ‘계급문학론’에서 출발하였지만, 노동자 계급의 이념을 기초로 한 ‘민족문학’이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던 것이다.

해방기 좌익 측의 두 가지 문학론은 ‘계급문학과 인민문학을 상호 지양 극복한 민족문학’이라는 접점을 끝내 찾아내었지만 때는 늦어 있었다. 해방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얻어낸 비전이 ‘너무 늦었던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혼란기가 바로 해방기였다.

해방기의 민족문학론은 실패한 역사의 부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한 번 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우리 문학사 전체에서도 찾기 힘든 가능성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보드래, 『민족문학과 한국문학』, 『민족문학사연구』44, 2010, 197~234면.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 김남식 편, 『남로당 연구 자료집(1)』,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 김명인, 『민족문학론과 동아시아론의 비판적 검토 - 해방의 서사를 기다리며』, 『민족문학사연구』50, 2012, 456~480면.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카프 해소 비해소파의 대립과 해방 후의 문학운동』, 『역사비평』, 1988.겨울.
- 백운복, 『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과학과 문화』1, 2004, 141~154면.
-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 여상임, 『해방기 좌익측 민족문학론의 인민성담론과 초코드화』, 『한국문예비평연구』37, 2012, 251~278면.
-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1986.
- 이선영 · 하정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론과 근대관』, 『민족문학사연구』8, 1995, 25~49면.
- 이우용, 『문건과 프로문맹의 문학운동론과 조직노선』, 『실천문학』, 1989.가을.
- 이우용,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태학사, 1992.
- 임규찬, 『카프 해소 비해소파를 분리하는 김재용에 반박한다』, 『역사비평』, 1988.겨울.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기 좌익 문학단체들의 성립·전개·해소과정 및 문학론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기에 좌익 문학단체들에 의해 전개된 민족문학론은 식민지시기 카프 문학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카프 해산 이후 새로운 문학에 대해 그리고 이전 카프 문학의 맹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식민지 조선의 문인들은 해방 직후 성급하게 문학단체의 설립을 기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서 해방이 역사적으로 정리될 정도의 성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기왕에 단체가 발족된 이상 일종의 이념과 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다. 성찰 과정이 생략된 채 무원칙하게 모인 집단에서 확고하게 정리된 입장을 견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이들에 반발한 다른 문인들은 별개의 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이들 두 단체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은 대립과 갈등의 과정에서 나름의 이론 논쟁을 전개하였으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력의 후광을 입을 필요도 있었다.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 흡수통합을 강요당한 한 단체의 요인들이 평양에서 집결하기 시작했으며 갈등과 대립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결국 이 갈등은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대립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민족문학’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냈다. 민족의 범위와 민족문학 개념의 논의 수준은 임화, 안함광 등에 의해 고양되었다. 이들은 각각 ‘인민문학론’과 ‘계급문학론’에서 출발하였지만, 노동자 계급의 이념을 기초로 한 ‘민족문학’이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던 것이다. 요컨대 해방기는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족문학론’이라는 기치 아래 다수의 문인들이 한데 묶일 수 있었던, 역사적 가능성의 순간이었다.

주제어 : 해방기,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조선문학가동맹,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임화, 안함광, 민족문학론

A Study on the Left-wing Literary Groups and Their Discussion about National Literature after the Liberation

Choi, Sung-Yu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leftist literary groups and their literary discussions after the liberation. Leftist-led national literature in this period should be identified as an extension of KAPF in the colonial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Korean writers established two literary organizations, 'the Central Committee for Korean Literature Construction' and 'Chosun Proletarian Literature Alliance'. But these movements were very impatient.

They have continued to debate the theory in the course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for a while. But in order to preempt the upper hand, they needed a background of political forces. Aspects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was reproduced by new groups, 'the Korean Writers Federation' and 'North Chosun Culture and Art Federation'. However some theorists such as Lim Hwa, An Ham-Kwang found the common denominator, national literature. They agreed the necessity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is based on the ideology of the proletariat. The liberation period was the only time of coalition under the slogan 'national literature'

in history.

Key words : Liberation Period, Lim Hwa, An Ham-Kwang, the Central Committee for Korean Literature Construction, Chosun Proletarian Literature Alliance, the Korean Writers Federation, North Chosun Culture and Art Federation, National Literature

이 논문은 2014년 12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